



## 치질약

### 요약

치질약은 항문에 발생하는 치핵, 치열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치핵이 치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치질약이라고 하면 치핵 치료제를 말한다. 외용제로는 치질의 부위에 바르는 크림이나 좌약이 있으며, 경구약으로는 식물성 플라보노이드로 구성된 약물, 대변완하제 등이 있다.

### 외국어 표기

hemorrhoid treatment (영어)

동의어: 치질치료제

유의어·관련어: 치핵치료제, 치핵약, 痔核治療劑, piles treatment, 치루치료제, 痔瘻治療劑, 치열치료제, 痔裂治療劑, phlebotonic

### 치질

치질은 항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질환이다. 항문 벽의 정맥 혈관그물(항문쿠션)이 늘어나서 혹이 생긴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항문샘(점액분비선)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치루로 나뉜다. 치핵이 치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말한다. 치핵이 항문 안쪽 깊숙이 생기면 내치핵(암치질), 항문 입구 쪽에 생기면 외치핵(수치질)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내치핵과 외치핵이 같이 나타나는 복합치핵(내외치핵)이 있다. 오래 앉아 있는 등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 변비나 배변 시 지나친 힘주기로 항문점막이 내려가는 등의 계속된 자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음주, 비만, 고지방식이, 임신과 출산, 만성피로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습관에 따라 악화되고 재발한다. 수분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따뜻한 물로 자주 좌욕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항문 주위에 좌욕을 하거나 얼음팩을 사용하여 붓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Table 1. 치질의 종류 및 증상

대분류	소분류		증상
치핵	외치핵	혈전성	항문 주변 혈관에 혈전(피떡)이 생기면서 팔알만한 덩어리를 만들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부종형	항문 주변이 혈전 및 부종에 의해 부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내치핵	1도	배변 시 치핵이 항문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고 출혈만 있는 경우
		2도	치핵이 배변 시 내려가나, 저절로 항문 내로 들어가는 경우
		3도	배변 시가 아니어도 치핵이 탈출하며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항문 내로 들어가는 경우
		4도	치핵이 항상 항문관 밖으로 탈출된 상태로 항문관 내로 밀어 넣을 수 없는 경우
	복합치핵	탈출치핵	내치핵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
		비탈출성 복합치핵	통증은 없이 선홍색 출혈이 있는 경우
		감돈치핵	항문괄약근의 수축에 의해 혈액공급이 장시간 차단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치열	얇은 피부로 덮여진 항문 표피가 찢어져서 통증 및 출혈이 생기는 경우		
치루	대장 내 점액분비선이 세균에 감염되어, 고름이 만성화되어 딱딱한 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약리작용

치질약은 항문에 발생하는 치핵, 치열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치루는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고 치핵이 치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치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치핵 치료제를 말한다. 치질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심하지 않은 치질의 대부분은 보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치질에 의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항문 주위의 근육을 이완하는 작용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치질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증상 완화에, 혈관수축제는 치질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효능·효과

약물별로 차이가 있으나, 항문 질환인 항문 벽의 정맥 혈관그물이 늘어나서 혹이 생긴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 종류

치질약의 종류로는 항문의 주위를 직접 치료하는 크림이나 좌약 등의 외용제와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등의 경구약이 있다. 치질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으며, 각 분류별 약리 작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노란색 계열의 색소로, 벤젠고리(C6) 2개가 3개의 탄소(C3)에 의해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군이다. 예로는 안토시아닌, 플라본, 플라보놀, 이소플라본 등이 있으며, 과일 표면, 잎의 표면, 꽃 등에 함유되어 있다.

## 외용제

외용제로는 연고, 크림, 좌약이 있다. 항문 주위에 적용하는 근육이완제, 소염제, 국소마취제, 혈관수축제 등의 성분이 사용된다. 좌약은 직장에서 녹아 흡수되어 국소적으로 작용하지만, 혈류를 통해 전신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단일 성분의 외용제와 각기 다른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을 복합한 외용제가 있다. 복합제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 비타민 E(토코페롤), 상처치료를 위해 비타민 A(레티놀), 세포재생효과를 위해 알란토인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 치핵은 항문 주위의 정맥 혈관그물이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이므로,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항문 주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순환과 정맥혈관의 재생을 도우면 통증이 완화되고 치질이 회복된다. 단일성분의 근육이완제로는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의 렉토제식연고® 등이 있다.

- 항문 부위에 스테로이드 등의 소염제를 사용하면 염증을 감소시켜 치질로 인한 불쾌감,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킨다. 프록토펬시드® 등의 연고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 히드로코르티손 성분으로 항염증 작용을 하며, 디부카인의 국소마취, 에스쿨로시드의 혈액순환 개선, 네오마이신의 항균작용이 복합되어 치질을 치료한다.

- 국소마취제는 통증을 완화한다. 국소마취·소염제는 프라목신 성분의 헤모렉스크림® 등이 있다.
- 출혈이 일어난 경우에는 혈관수축제를 사용하여 부종과 출혈을 억제한다. 푸레파연고® 등은 페닐레프린 성분의 혈관수축 작용과 리도카인의 국소마취, 알란토인 성분의 피부보호,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항균작용, 토코페롤의 항산화, 레티놀의 상처치료 복합 작용으로 출혈을 억제하고, 통증 및 가려움 등 자극감을 감소시킨다.

### 경구약

경구약으로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정맥 치질약과 대변완하제, 소염 진통제 등이 있다.

-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정맥 치질약은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혈관 탄력 개선 및 혈액 순환 정상화, 항염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출혈, 가려움증,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 디오스민, 트룩세루틴, 헤스페리딘(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사용된다. 베노론® 등이 있다.

- 완하제는 굳은 변을 부드럽게 하여 항문에 가는 자극을 줄여 치료를 돕는다.식이섬유와 물의 섭취를 늘리면 변이 묽어지고 양이 증가하여 배변 시의 과도한 긴장을 방지하므로, 대변완하제 복용 시 보조 요법으로 식이섬유제제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주로 팽창성 하제\*를 사용하며, 제품으로는 차전자피 성분의 무타실® 등이 있다.

- 기타: 외치핵의 경우, 통증이 비교적 심하지 않으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한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출혈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질에는 복용하지 않는다. 소염진통제는 치핵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 준다.

\* 팽창성 하제: 대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치료하는 약물이다.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10~30배로 팽창해서 변의 양을 늘림으로서 장벽에 자극을 주고 장운동을 항진시켜서 완화작용을 한다.

## 용법

연고와 크림 형태의 제제는 항문 부위에 적용한다. 좌약은 직장 내에 삽입한다. 경구약은 물과 복용한다. 치질의 정도와 약물에 따라 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 부작용

치질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에 차이가 있으며, 각 종류별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외용제: 가려움증, 부종, 붉어짐, 출혈 등
- 경구약: 속쓰림과 미식거림 등의 위장 장애, 피부발진 등

## 주의사항

### 외용제

- 외용제 사용 시 가벼운 가려움증, 통증, 출혈이 나타나거나, 치질 증상의 개선이 없으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소염 작용이 있는 외용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증 및 가려움, 수포, 화끈한 증상(작열감)이 사라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장기간 계속해서 바른다. 다만, 히드로코르티손과 같은 국소 스테로이드는 항문 주변 피부를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외용제 중 좌약은 무르게 된 경우에는 잠시 냉각시킨 후에 사용하며, 지나치게 딱딱하게 된 경우에는 실온에 두어 무르게 한 후 사용한다. 연고제는 항문부위에만 사용하고 복용하지 않는다. 안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심장질환, 고혈압, 갑상선질환, 당뇨병, 전립샘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는 외용제 중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된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외용제 중 니트로글리세린 연고의 경우, 심한 빈혈증, 녹내장, 저혈압, 높은 뇌압 환자,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복용을 하지 않는다.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하고 치료하는 동안은 가능한 금주한다.

### 경구약

완하제 중에서 팽창성 하제인 차전자피 제제는 다른 약물을 흡착하여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또한 장기간 복용 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복용한다.

그 외에 주의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아, 청소년 사용

소아의 경우, 성인의 감독 하에 치질약을 사용하고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임산부 사용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치질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 경구약 중 디오스민, 멜릴로투스엑스, 헤스페리딘, 트록세루틴 등이 복합된 플라보노이드 성분 제제의 경우,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는 복용하지 않는다. 플라보노이드 성분 제제를 제외한 경구약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임부 및 수유부의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